

# 오피니언

## 특별기고



김행운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추봉 아래 용소에서 발원해 하구언까지 136km에 걸쳐 '남도의 동맥'인 듯 흐른다.

남도는 청동기시대 이래로 농경과 해상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며 복합적 문화특성을 지닌 '영산강 문화권'을 형성했다. 남도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생업으로서 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산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4세기말 영암 구림 마을을 출발한 왕인박사가 일본 고대 아스카 문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영산강의 지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천 년을 흐른 영산강은 남도민의 삶터로서 막힌 적 없이 도도하게 흘러왔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영산강은 서해가 만조일 때 바닷물이 영산포 일대까지 올라와 역류하고, 여름에는 수해도 심각해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남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고자 지난 1972년 영산강유역 종합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담양과 장성·광주·나주호 등 4개 댐이 생기고, 바다와 맞닿았던 영산강은 하구둑이 완공되면서 물길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다. 비로소 가뭄 때 농업용수를 활용하거나 바닷물로 인한 범람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어렵던 시절 4개 댐이 모두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영농기에는 용수공급에 주력하고, 비영농기에는 물을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갈수기에 하천이 말라붙는 일이 생기고, 하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덕유이 곡창 전남의 수리문화를 꽃피웠던 총 1만2000여 곳의 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지면서 수자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봄에는 가뭄과 7~8월에 집중된 강우량 등 연중 강우의 분포도 고르지 않은데다,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해 물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 유역면적은 3371km로 200여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과거 영산강유역 종합 개발사업으로는 안정된 다수확과 생

태계 보전, 두 측면을 모두 아우르지는 못했다. 수량이 머무르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자원이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뿐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보다 많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강 유역의 저수지 독보이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저수지를 확대 보강하면서도, 용수확보와 환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저수지 독보이기 사업은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정치와 경제, 문

화와 예술의 발전 토대인 호남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계기를 열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축조한 수리시설은 당시에는 반자연적인 시설로 보였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감탄한다. 이전의 치수사업으로 자연재해를 줄이고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치수사업도 바뀌고 있다. 물의 이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농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치수사업을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것이다.

지난 8일 나주 금천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분사이전 착공식이 열렸다. 농경과 해양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농도' 전남에 뿌리를 두게 된 것이다.

남도민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물길, 영산강 350리. '농도' 전남이 다시 한번 '영산강 문화권'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이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발걸음이 남도민에게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희망이 흐르는 영산강



### 법조칼럼



박인우

필자가 공판부 검사로 일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공판부는 사무실을 여러 명의 검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은 재판이 없는 날이어서 필자는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표정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동료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 그 검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필자는 단순히 소송관계인이 면담을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록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은 왠지 불안한 신경이 자꾸 쓰였고 필자는 호기심이 생겨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동료검사에게 "바쁘신데 죄송

##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

합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가방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동료 검사에게 보여주면서 "참 귀엽지요?"라고 말을 이어갔다. 동료검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 예쁘네요"라고 답했고, 그 남자는 "요즘 셔플댄스가 유행이라면서 제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여줬다.

"요즘 저는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아이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이 엄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만든 녀석들이 버젓이 잘 살아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 녀석들을 함께 데려가 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녀석이 이파르트 해단 나간에 매달려서 얼마나 춥고 아팠을까요. 거기다가 부검을 하면서 온몸이 민신창이가 된 것을 생각하면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잔잔하던 공판부 사무실에 이 남성의 절규가 퍼져나갔다. 이 남자는 바로 지난해 연말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계단의 난간에서 목을 매 자살했던 어떤 중학생의 아버지였다. 필자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결국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버렸다. 같은 학생들의 폭력과 괴롭힘이 한 아이의 죽음과 한 가정의 파탄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 이 사건은 필자가 지난 연말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사건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사건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의 처리 지침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최근에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좀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범인 청소년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받은 후 짧은 면담을 하고 기소유예(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를 내렸지만 최근에는 조범의 경우라도 교육을 받게 하거나 선도조건을 부과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좀 더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폭력이 발생한 후 그 폭력에 대해 수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한 뒤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이 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참교육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가정에서 아이들의 심성 교육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과 그로 인한여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없기를 희망한다.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

## 기고



박태식

지난 2일 농협이 새롭게 탄생했다. 1961년 종합농협 체제로 출범한 지 51년 만에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농협은 본연의 사업인 농산물 판매는 소홀히 하고 돈놀이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농협을 판매 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여 년 이상 있어 왔으며, 많은 논란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최근 농·수·축산업 및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로 현재의 사업구조로는 사업의 위축은 물론 조직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농협의 생존을 위해서도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 산하에 판매사업을 담당할 '경제지주'와 은행 업무를 관장할 '금융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신설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과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도 사업에만 전념토록 했다.

'경제지주' 산하에는 농협유통, 목우촌, 농협사료 등 계열사를 편입하고, '금융지주' 산하에는 NH농협은행과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증권·선물·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편입하는 등 체제를 재편했다.

농협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어려운 농업·농촌·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농협이 주도하는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해 주는 '판매중심의 농협'을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농협 경제지주회사는 농산물 도매 물류기지 건설, 종합식품회사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농협 판매장 체인화 등 운영체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조직으로 발전해 오는 2020년에는 사업물량 44조원을 취급하는 '세계 No.1 판매농협'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농협은행 출범은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협동조합 수석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야만 하는데 협동조합의 형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나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선진국 농업은행들도 농협처럼 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세계

적인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업인과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자본이 60% 이상인 국내 시중은행의 지배구조는 배당을 통해 국내에서 얻은 은행수익의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와 달리 농협은행은 국내 농업인의 출자로 이뤄진 농·축협이 주주의 자격으로 농협중앙회를 지배하고, 중앙회가 금융지주에 출자하는 협동조합은행이다.

은행에서 얻은 수익은 중앙회의 회원인 농·축협에 대한 출자배당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지원되고, 농·축협은 농업인에 대한 배당과 환원사업을 통해 다시 농업인에게 환원되는 명실상부한 토종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농협은 새로운 각오로 전 임직원이나 하나로 똘똘 뭉쳐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고 농업인 삶의 증진과 지역발달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농업인과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 무소속 후보 제외한 토론회, 공영방송 맞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MBC 노조의 파업이 50여 일을 맞고 있다. MBC 노조의 파업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방송의 기본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시청자가 외면하는 방송은 더 이상 방송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 노조의 파업은 단순한 MBC 방송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에 의해 뒤를 려진 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정치

적 중립성'을 바로잡아 방송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국민과 시청자들은 MBC 노조의 투쟁이 승리하여, 방송이 '공영방송'의 제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광주MBC는 지난 18일 '특집토론회 선택! 4·11 후보자 초청 토론회-광주 서구 읍원'을 방송하였다.

지난 16일 녹화방송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배제한 특정정당 2명만을 초청한 토론회

는 '공정성'과 '시청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주장을 묵살한 채 방송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광주MBC의 태도는 현재 MBC 노조가 벌이고 파업의 진정성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의하면, 언론사가 대담을 하거나 토론회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예비후보자 중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배제한 토론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과연 광주MBC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광주MBC는 국민과 시청자의 외면을 받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의 정치사의 운명이 걸린 국회의원 선거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또한 높다. 광주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인의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정태·광주시 서구 용암동

## 시설

### F1 수지 개선, 이젠 정부가 지원 나서야

올해 열리는 'F1(10월 12일~14일) 코리아 그랑프리'부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내지 않는 등 23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당초 개최권자와 F1매니지먼트(FOM)가 각각 25%, 75%로 나눠 가졌던 스폰서십 분배 비율을 각 50%로 조정해 전반적으로 F1의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지난 4개월 동안 FOM과의 협상에서 타결한 주요 골자는 대회 개최 가운데 TV 중계권료 1천390만 달러(157억 원)와 원천세(중계권료의 11%), 할증료 면제다. 할증료의 경우 매년 10%씩 증액하게 돼 있는 개최권료 할증 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FOM 납부액 231억 원, 대회 운영비 21억 원 등 252억 원의 비용 절감과 관련해 50억 원, 마케팅 수입 57억 원 등 117억 원의 수입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369억 원의 수지가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600억 원대 적자를 내면서 개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F1 대회가 적자 탈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1이 지속 개최되고, 진정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지원 확대와 메인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FOM에 지불하는 개최권료만 하더라도 494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은 50억 원이 고작이고, 스폰서 수입 역시 32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F1이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3대 메인스포츠라는 점을 유념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전남도 또한 정부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 여기에, F1 관련 산업과 스폰서 유치 등 수익사업에도 주력해야 한다. F1으로 인해 전남이 빛바림에 앉았다면 오히려 성장동력이 아니라 발전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 광주·전남 산업현장 사망자 급증 대책 없나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은 소형주책 건설현장이나 영세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안전불감증 해소와 과제에 대두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161명이 숨졌고, 올 들어서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등 산업현장에서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수 161명은 전년도 149명보다 12명, 8%나 늘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재해율 0.68%와 대조적이어서 사망사고 급증 추세를 반증해주고 있다.

교육은 지난 2010년 11월 근로자 안전 교육, 사내 하청·과건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등 '산업재해 격점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하지만,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재해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은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구조장비 등이 미흡한 탓이 크다. 산업재해의 73.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또 소형주책 건설 붐에 따라 사망사고 3건 중 1건(52명, 32.3%)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재해가 발생하면 곧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긴 셈이다.

그렇지만, 영세하다는 게 산재 사망사고 급증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업체 대표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당국도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족제비과의 포유류 동물. 몸 길이는 60~80cm, 꼬리 40~50cm, 몸무게는 5.8~10kg. 유선형의 광택 나는 갈색 몸매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짧은 네 발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친다. 머리는 납작한 원형이고 코는 둥글며 눈은 작다. 야행성동물로 낮에는 휴식하고 위험할 땐 물속으로 잠복한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수달(水獺)이다. (사)한국수달 보호협회에 따르면 수달은 세계적으로 13종이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유라시아수달(Ursian otter)이다. 오열되지 않고 먹이가 충분한 해안이나 강, 호수, 늪지대에서 자라는 탓에 건강 한 수달의 지표종으로 꼽힌다. 메기·가물치·미꾸라지와 같은 물고기와 가재, 개,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 예로부터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었다.

수달은 가끔 물고기를 잡아 물가에 늘어놓고 발을 모아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달제어(獺祭魚)라는 말이 나왔다. 문인들이 시문(詩文)

을 지을 때 참고문헌을 어수선하게 늘어놓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하지만 수달의 이같은 행동은 물고기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습성이라고 한다. 주몽 신화에에도 물고기잡이 명수 수달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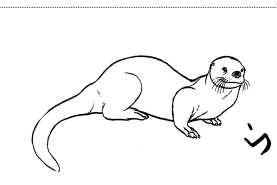
과거에는 전국 어느 하천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보은·방수 능력이 뛰어난 가족과 털을 얻기 위해 남획한데다

하천의 오염으로 먹이가 감소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1982년 천연기념물(제330호) 지정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전남 지역 무인도는 물론 광주천 등 도심 하천 곳곳에서도 서식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환경이 좋아져 개체수가 늘어난 것인지, 먹이 감소에 따른 영역 확대인지의 분명이 되지 않지만 해남과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는 수달로 인한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어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공생의 해법'을 제시할 차례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달제어(獺祭魚)



이런 수달은 개체수가 늘어난 것인지, 먹이 감소에 따른 영역 확대인지의 분명이 되지 않지만 해남과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는 수달로 인한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어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공생의 해법'을 제시할 차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7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